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소금맷돌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
• **주제** : 욕심

핵심어 소금, 농부, 부자, 심술쟁이, 맷돌, 욕심, 바닷물, 유래담

한국문화 • **목표** : 맷돌의 모습과 쓰임새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맷돌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말의 재미를 느낀다.
• **단어** : 맷돌, 소금, 쌀, 획획, 술술, 빙글빙글
• **표현** : 맷돌을 획획 돌렸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소금맷돌' 이야기예요.

여러분, 넓고 넓은 바다를 본 적이 있나요? 그 넓은 바다의 바닷물이 어떤 맛인지도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닷물은 짠 맛이 나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짠 맛이 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세요. 가난한 농부와 욕심 많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바닷물이 짠 맛이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이야기 한번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소금맷돌'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농부 집에는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 굶어 죽겠네.”

농부는 심술쟁이로 소문난 이웃집 부자에게 먹을 것을 빌리러 갔어요.

“내년에 꼭 갚을 테니 먹을 것 좀 빌려주세요.”

“흥! 쫄쫄 굶고 있으면서 내년에 무슨 방법으로 갚는다는 거야? 당장 나가!”

농부는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겨우 좁쌀 한 바가지를 빌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는 부잣집 담 밑에 어떤 할아버지가 무거운 맷돌을 진 채 쓰러져 있는 걸 보았어요.

“할아버지, 정신을 차려 보세요.”

농부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겨우 얻은 좁쌀로 죽을 끓여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농부 덕분에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고맙소. 내가 꼭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맷돌을 줄 테니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오.”

할아버지는 맷돌을 주고 떠났어요.

“어휴, 맷돌이 있으면 뭐 하나. 그 속에 넣고 갈 곡식도 없는데…….”



이야기 들려주기

농부는 한숨을 쉬며 빈 맷돌을 휘휘 돌렸어요.

“어휴, 맷돌에서 쌀이 술술 나오면 좋겠구나. 쌀아, 술술 나와라.”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빈 맷돌에서 쌀이 술술 나왔어요. 농부가 깜짝 놀라 맷돌을 멈췄더니 쌀이 나오지 않았어요. 농부는 혹시나 해서 맷돌을 또 돌렸어요.

“쌀아, 술술 나와라.”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농부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집 부자는 심술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집 담 밑에 쓰러진 사람이 준 맷돌이라면 당연히 내 거 아니야?”

그날 밤 욕심쟁이 부자는 농부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맷돌을 어디 숨겼을까?”

부자는 농부가 잠에서 깰까 봐 살금살금 이곳저곳 살펴보았어요.

“앗, 맷돌이 여기에 있네! 히히히히”

부자는 맷돌을 들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차차, 집에 맷돌을 놔두면 농부가 돌려 달라고 할 거야!”

가만히 생각하던 부자는 집을 나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로 했어요.

“영차, 영차! 이 맷돌은 내 거야! 영차, 영차!”



이야기 들려주기

한참 노를 저으며 바다를 건너던 부자는 갑자기 맷돌이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어요.

“가만,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못 봤잖아? 뭘 달라고 하면 좋을까? 옹지! 그게 좋겠군.”

부자는 노를 젓던 것을 멈추고 맷돌을 돌리며 말했어요.

“소금아, 소금아. 술술 나와라.”

부자가 맷돌을 휘휘 돌리자 흰 소금이 술술 나왔어요.

“히히히히! 진짜 나온다! 소금아, 더 술술 나와라!”

부자는 너무 기뻐서 맷돌을 더 빨리 돌렸어요.

그런데 맷돌에서 소금이 갑자기 쏟아지자 배가 무거워지고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맷돌을 돌렸지요.

“이 소금을 다 팔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야!”

소금으로 가득 찬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배와 함께 가라앉은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욕심을 내며 맷돌을 돌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는지 바닷물이 지금처럼 짜게 되었거든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착한 일을 한 농부가 받은 선물은 뭐였지요? 네, 맞아요. 맷돌이에요. 이웃집 욕심쟁이 부자는 맷돌을 휘휘 돌렸어요. 여기서 ‘휘휘’은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휘휘’ 돌아가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맷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맷돌은 동그랗고 평평한 돌 두 개를 포개서 만들어요. 위에 있는 돌에는 긴 손잡이와 곡식을 넣는 구멍도 있지요. 구멍에 곡식을 넣고, 손잡이를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 가루가 되어서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맷돌로 쌀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또 콩을 갈아서 두부도 만들었지요. 맷돌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소금맷돌’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가난하지만 착한 농부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살펴주자 할아버지가 신기한 맷돌을 주었어요. 농부는 맷돌에서 나온 쌀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지만, 욕심 많은 부자는 소금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어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았겠지요? 친구들과 지낼 때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니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